

보도시점 (전매체) 5. 13.(월) 07:40

2024년 1분기 벤처투자 1.9조원 · 기금(펀드)결성 2.4조원

-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6%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6% 성장하는 등 2023년 이후 회복세 지속 중
- 관련 현황 및 대응 방안을 5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3일(월)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및 기금(펀드)결성 동향*을 포함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 「혁신 벤처 ·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2023년,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금융사) 등의 실적을 모두 포함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동향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23년 벤처투자 회복세는 2024년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신규 투자(1.9조원) · 기금(펀드)결성(2.4조원) 모두 전년동기 대비 6% · 42% 늘었고, 1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2020~2024) 각각 연평균 6% · 23%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었다.

두 번째, 미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 대비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달러 환산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1분기)보다 15% 늘었으나, 미국(10% 감소) · 영국(8% 감소) 등은 2020년 1분기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우주항공 · 인공지능(AI) · 로봇 등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특히 양호한 상황이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피투자기업에 한정하여 상세 분석한 결과, 심층기술(딥테크) 10대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작년 연말 31%에서 올해 1분기 40%로 늘어났다.

* ① AI · 빅데이터 ② 시스템반도체 ③ 로봇 ④ 모빌리티 ⑤ 클라우드 · 네트워크
⑥ 우주항공 ⑦ 친환경기술 ⑧ 양자기술 ⑨ 바이오 ⑩ 차세대원전

심층기술(딥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면서 1천억원 내외 대규모 투자 사례도 늘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주)리벨리온(AI 반도체 설계)과 (주)업스테이지(생성형 AI 서비스) 등이 1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로봇 분야에서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한 기업인 (주)베어로보틱스가 800억원을 투자받았다.

벤처투자 시장의 성장세는 2024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장상황과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업가치 조정에 따른 투자기회 확대 등은 긍정적이지만,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신규 기금(펀드)결성 시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또한, 연내 금리인하 또는 주식시장 회복 시 벤처투자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나, 5월 현재 고금리 장기화 우려 및 주가지수 부진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시장상황 및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융 마중물을 분야별로 공급하고,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환경을 개선해 왔다.

첫 번째,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딥테크·세컨더리 등),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지역), 국제적(글로벌)펀드(글로벌) 등을 조성하여 중점 투자 분야별로 재원을 확충했다.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을 통해 민간자금 3천억원 이상을 출자받아 연내 8천억원 이상 벤처기금(펀드)을 조성하고,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 2천억원,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 1조원 등도 추가로 조성한다.

두 번째,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업계의 기금(펀드)결성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4조원 규모의 출자공고를 1분기 내에 모두 완료하여 최소 2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세 번째, 대규모 민간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 모기금(펀드)을 법제화하였고, 투자조건부 용자* 제도 등 선진금융기법을 국내에 도입하는 등 투자제도 개선도 병행하였다.

* 금융기관(은행 등)이 스타트업의 신주인수권을 부여받는 대신 저금리로 용자 제공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나, 정부는 향후에도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적시성·타당성 높은 통계로 시장상황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에 더해 국제적(글로벌)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투자주체를 아우르는 시장동향 분석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기금(펀드) 운용현황 관련 정보(수익률 등)도 분석하여 민간에 공개한다.

두 번째, 지역·기술·세계(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적합한 투자처를 원활히 찾을 수 있도록 전용 기금(펀드) 조성·맞춤형 투자유치 프로그램·정보공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뒷받침한다.

비수도권 전용 기금(펀드)을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해당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VC들이 신규 투자처 발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스타트업 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 결과 등을 공유하여 혁신 기술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또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하고 국내외 VC들이 염선한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해외투자자에게 소개하는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일본(5.10.)을 시작으로 미국·아시아·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세 번째, 국내 벤처투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금(펀드)결성·투자·회수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올해 중으로 마련한다.

오영주 장관은 “시장상황을 살피면서 시의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별첨]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

담당 부서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책임자	과 장	이지호 (044-204-7720)
		담당자	사무관	윤홍민 (044-204-7722)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	책임자	팀 장	손필수 (02-3017-7050)
		담당자	과 장	김예랑 (02-3017-7054)
	여신금융협회 신기술금융부	책임자	부 장	이정음 (02-2011-0785)
		담당자	조사역	권순성 (02-2011-0671)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1. 딥테크 분야 선정기준은?

- 신산업 분류 관련, 그간 관계부처 등이 검토·발표한 기준 참고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따른 초격차 10대 분야* (관계부처 합동, '22년) 및 혁신성장 공동기준('17년~) 등
 -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2. 벤처투자회사 · 조합 현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개하는지?

-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자료를 수집 · 관리하고 있는 벤처캐피탈 협회가 자체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월별로 공개
 -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3.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의 방향성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 우리나라가 글로벌 벤처투자 선진국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위주로 추진할 계획
 - 펀드결성 · 투자 · 회수 등 모든 분야의 현황 진단을 토대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선방안 마련

별첨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

2024. 5. 13.

관계부처합동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요약)

1 벤처투자 시장현황 및 전망

□ (현황 진단) '24년 1분기 벤처투자는 양호한 흐름 지속 중

* 신규 투자(1.9조원) · 펀드결성(2.4조원) 모두 ▲전년동기보다 늘면서(투자 +6%, 펀드결성 +42%) ▲중장기 성장세 유지,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대비로도 양호

<1분기 국내 벤처투자(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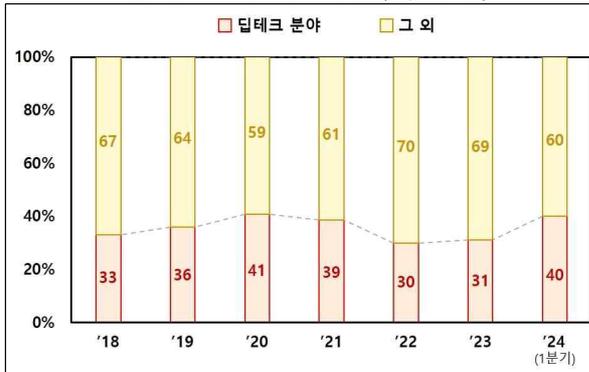
<1분기 국내 벤처펀드 결성(억원)>

구분	투자액	전년동기비	구분	펀드결성액	전년동기비
'20년(1분기)	14,670		'20년(1분기)	10,423	
'21년(1분기)	24,710	+68%	'21년(1분기)	27,765	+166%
'22년(1분기)	39,189	+59%	'22년(1분기)	42,998	+55%
'23년(1분기)	17,800	△55%	'23년(1분기)	16,687	△61%
'24년(1분기)	18,787	+6%	'24년(1분기)	23,628	+42%

○ 인공지능(AI) · 로봇 · 우주항공 등 딥테크 분야 투자 활발

<딥테크 투자 비중(% , 추정)>

< 관련 투자유치 사례(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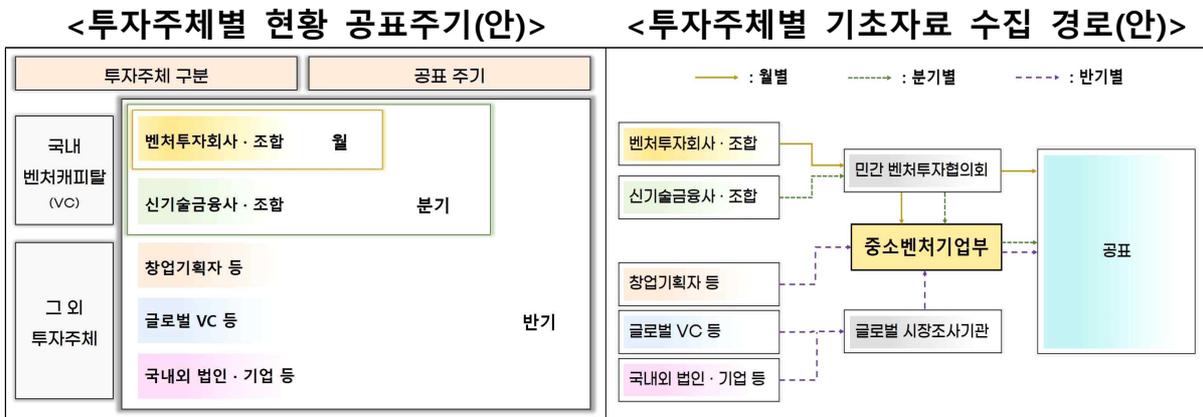
분야	기업명	투자규모
AI	리벨리온	1,650
	○○○(미공개)	1,500
	업스테이지	1,000
로봇	베어로보틱스	800
우주항공	프리뉴	150
클라우드	이테크시스템	1,800

□ (향후전망) 스타트업 기업가치 조정에 따른 투자기회 확대(저가 매수) 등은 긍정적이나,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불확실성 지속

○ 벤처캐피탈(VC) 업계에서는 고금리 영향에 따른 벤처펀드 출자 감소로 신규 펀드결성이 어렵다는 의견 상당

2 정책방향

- **(추진현황)** 업계 의견을 고려, 주요 분야별 ▲정책금융 마중물 공급 · ▲민간자금 유입기반 확대 등 벤처펀드 자금모집 지원
 - 스타트업코리아펀드 및 지역·글로벌 등 분야별 중점투자재원 확충, '24년 모태펀드 출자사업 조기집행(1분기 내 1.4조원 공고)
 -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화 · 투자제도 개선 등 완료
- **(향후계획)** ▲벤처투자 시장동향 분석체계 고도화 · ▲국내외 투자수요 뒷받침 ·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 다양한 투자주체별 현황을 일정 주기(월~반기)마다 공개하고, 벤처펀드 운용 수익률 등도 전수조사 · 분석



- <국내>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및 우수 기술기업 투자 촉진, <해외> 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 노력

구분	주요 내용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26년까지 누적 1조원 이상 공급 ▪ 지역 유망 스타트업 투자설명회 정례 개최(연간 총 6회)
우수 기술기업 투자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C들이 신규 투자처 발굴시 활용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기술평가 정보(기술보증기금) 공유 추진
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펀드를 '27년까지 4조원 규모 추가 조성 ▪ 국내외 VC들이 추천한 우수 스타트업을 해외투자자에게 소개하는 투자유치 프로그램(K-글로벌스타) 신설

- '24년 하반기 중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순 서

I . 벤처투자 시장현황 및 전망	1
1. '24년 1분기 시장현황	1
2. 향후전망	5
II . 정책방향	7
1. 추진현황	7
2. 향후계획	9
3. 추진일정	11

I. 벤처투자 시장현황 및 전망

1 '24년 1분기 시장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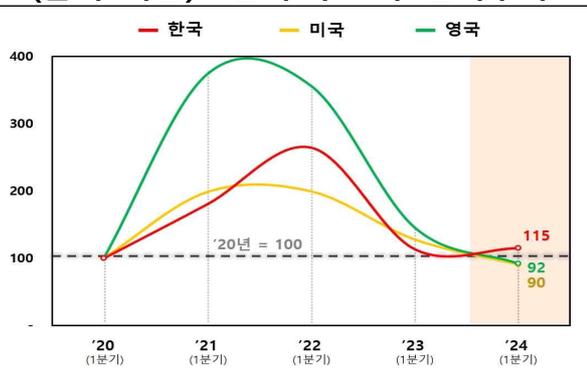
- ◇ (평가) 최근 벤처투자 시장은 '23년 이후 회복세 지속 중
 - '24년 1분기 신규 투자(1.9조원) · 펀드결성(2.4조원) 모두 ▲전년 동기보다 늘면서 ▲중장기 성장세 지속, ▲주요 선진국 대비로도 양호
- ◇ (특징) 우주항공 · AI · 2차전지 · 로봇 등 딥테크 투자 활발

□ (벤처투자) 1.9조 원(전년동기비 +6%) ⇨ 1분기 기준 최근 5년간('20~'24) 연평균 6% 늘었으며, 미국 등 주요국 대비로도 양호

<1분기 국내 벤처투자(억원)>

구분	투자액	전년동기비
'20년(1분기)	14,670	
'21년(1분기)	24,710	+68%
'22년(1분기)	39,189	+59%
'23년(1분기)	17,800	△55%
'24년(1분기)	18,787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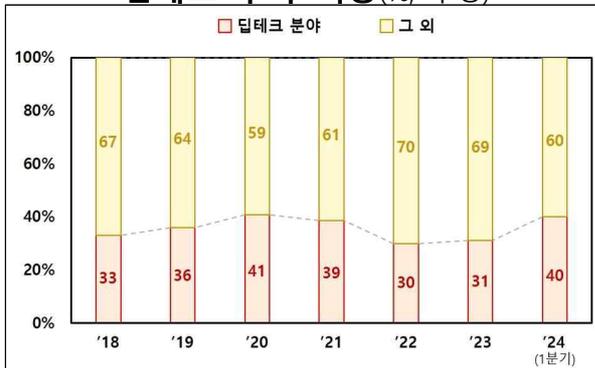
<(달러 기준) 1분기 주요국 벤처투자>



○ 딥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견조하며, 특히, 우주항공 · 인공지능(AI) · 친환경기술 · 로봇 등 선호

* (범위) ① AI · 빅데이터 ② 시스템반도체 ③ 로봇 ④ 모빌리티 ⑤ 클라우드 · 네트워크 ⑥ 우주항공 ⑦ 친환경기술 ⑧ 양자기술 ⑨ 바이오 ⑩ 차세대원전

<딥테크 투자 비중(% 추정)>



<주요 딥테크 분야 투자규모(억원)>

구분	'24년 (1분기)	전년동기비
우주항공	204	+721%
AI	914	+345%
친환경기술 (2차전지 등)	393	+116%
로봇	557	+35%
딥테크 분야	3,923	+36%
전체	9,820	+7%

*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 조합 실적을 상세 분석한 결과

< '24년 1분기 벤처투자 현장 분위기 >

- AI·로봇 등 딥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양호한 상황으로, 1천억원 내외 대규모 투자 사례가 늘고 있음

(단위 : 억원)

분야	기업명	'24년 1분기 투자유치	
		금액	주요 투자자
AI	리벨리온	1,650	KT, 산업은행, KB인베스트먼트 등
	○○○(미공개)	1,500	미공개
	업스테이지	1,000	SK네트웍스, 하나벤처스, 신한벤처투자 등
로봇	베어로보틱스	800	LG전자
클라우드	이테크시스템	1,800	SG프라이빗에쿼티

- 신규 상장기업 수(28개사)와 상장 시 조달금액(5,400억원) 등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는 등 기업공개(IPO) 시장도 양호

< 최근 5년간('20~'24) 1분기 기업공개 현황 >

(단위 : 개사,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신규 상장기업 수*	14	31	26	27	28
상장 시 조달금액*	3,172	13,073	5,574	5,768	5,368

* '21년 SK바이오사이언스(1.5조원), '22년 LG에너지솔루션(12.8조원) 제외

** KOSPI · KOSDAQ · KONEX 합산

< '24년 1분기 투자유치 스타트업 대표 사례 >

(단위 : 억원)

구분	기업명	개요	투자유치	'24년 1분기
			(누적)	
AI	 (주)업스테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서비스) 생성형 AI 기반 언어모델 · 문서 자동화 솔루션 등 ▪ (업력) 5년차 ('20년 10월~) 	1,3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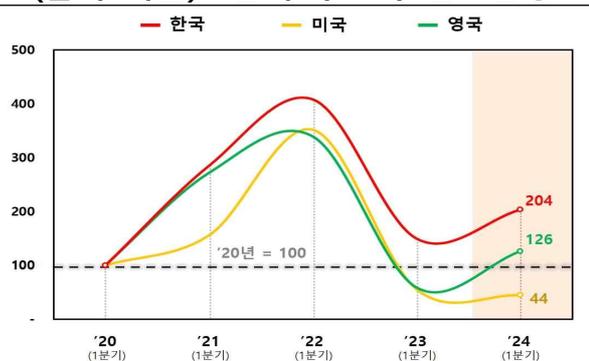
구분	기업명	개요	투자 유치 (누적)	
			'24년 1분기	
로봇	 베어로보틱스(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제품) 자율주행 서빙로봇 (업력) 8년차 ('17년 5월~) 	2,760	797
우주항공	 (주)프리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제품) 무인항공기(드론) (업력) 8년차 ('17년 6월~) 	190	150
친환경기술	 (주)빈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제품) 선박용 친환경 연료전지 (수소 · 전기 등 활용) 시스템 (업력) 8년차 ('17년 9월~) 	353	150

□ (벤처펀드 결성) 2.4조 원(전년동기比 +42%) ⇨ 1분기 기준 최근 5년간 연평균 23% 늘었으며, 미국 등 주요국 대비로도 양호

<1분기 국내 벤처펀드 결성(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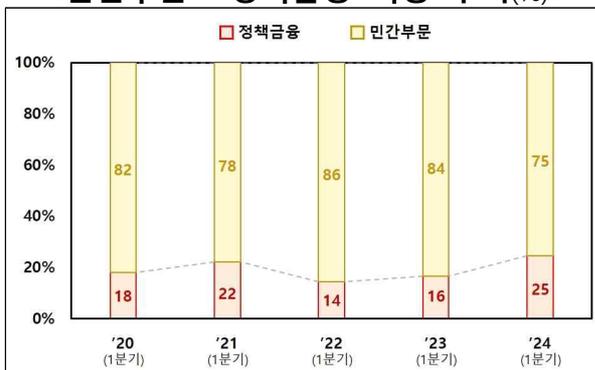
구분	펀드결성액	전년동기比
'20년(1분기)	10,423	
'21년(1분기)	27,765	+166%
'22년(1분기)	42,998	+55%
'23년(1분기)	16,687	△61%
'24년(1분기)	23,628	+42%

<(달러 기준) 1분기 주요국 펀드결성>



○ ▲정책금융 비중(25%)이 최근 5년간 가장 높고, ▲연기금 · 공제회, 외국인(법인 포함), 산업은행 등의 출자규모 급증

<민간부문 · 정책금융 비중 추이(%)>



<'24년 1분기 출자자 세부현황(억원, %)>

구분	'24년 (1분기)	전년동기比
연기금 등	1,163	+730%
외국(법인)	879	+472%
산업은행	1,712	+350%
성장금융	2,046	+134%
VC · AC	2,847	+66%
기타	14,981	+12%
전체	23,628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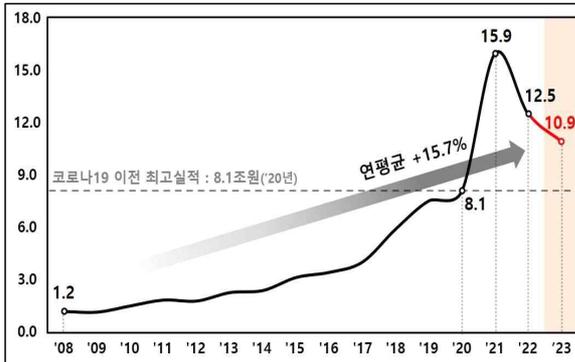
< '23년 벤처투자 · 펀드결성 현황 >

- 신규 투자(11조원) · 펀드결성(13조원) 모두 ▲분기별 실적이 늘면서* ▲중장기로도 견조한 성장세, ▲美 · 유럽보다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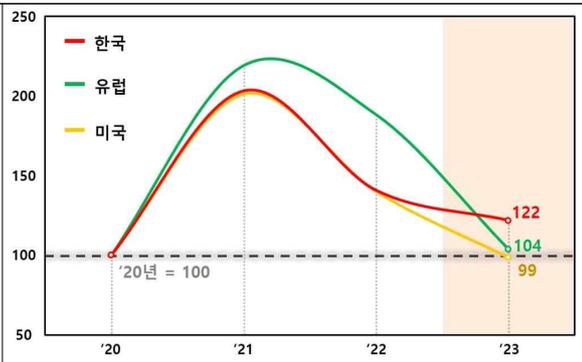
* 분기별 투자액(조원) : (1Q) 1.8 → (2Q) 2.7 → (3Q) 3.2 → (4Q) 3.3
 분기별 펀드결성액(조원) : (1Q) 1.7 → (2Q) 3.0 → (3Q) 3.8 → (4Q) 4.2

- '23년 벤처투자 규모(11조원)는 '21~'22년 제외시 역대 최고 수준으로, '08년 이후 연평균 16% 증가
 - 달러 환산시 84억\$로, '20년(69억\$)보다 22% 늘어 미국(△1%, 1,731억\$ → 1,706억\$) · 유럽(+4%, 595억\$ → 619억\$)보다 양호

<국내 벤처투자(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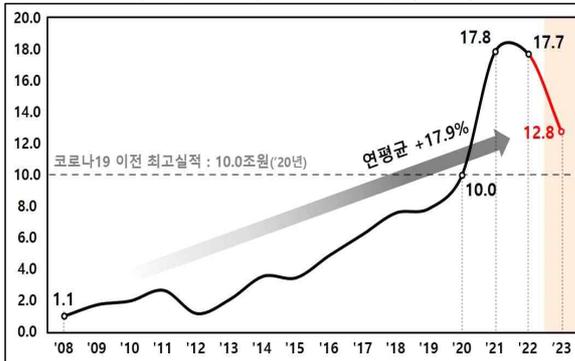
<(달러 기준) 주요국 벤처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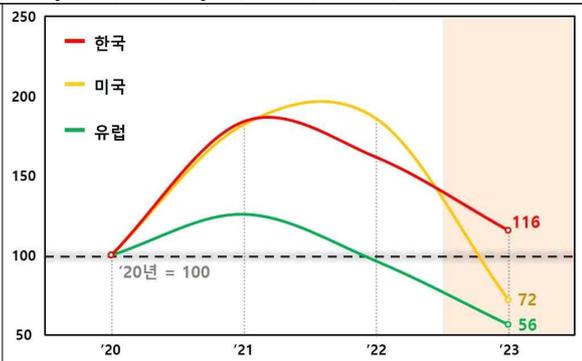
- '23년 벤처펀드 결성 규모(13조원)는 '21~'22년 제외시 역대 최고 수준으로, '08년 이후 연평균 18% 증가

- 달러 환산시 98억\$로, '20년(85억\$)보다 16% 늘어 미국(△28%, 930억\$ → 669억\$) · 유럽(△44%, 311억\$ → 175억\$)보다 양호

<국내 벤처펀드 결성(조원)>



<(달러 기준) 주요국 벤처펀드 결성>



2 향후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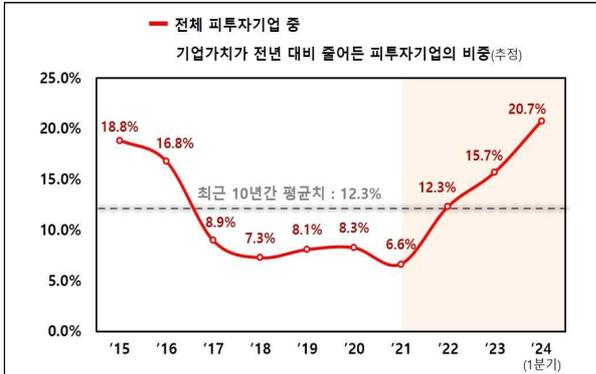
◇ (개요) '24년 벤처투자는 중장기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나,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신규 펀드결성 활성화 노력 필요

□ (업계 의견) 스타트업 기업가치 조정에 따른 투자기회 확대(저가 매수) 등은 긍정적이나, 신규 펀드결성 등 관련 어려움 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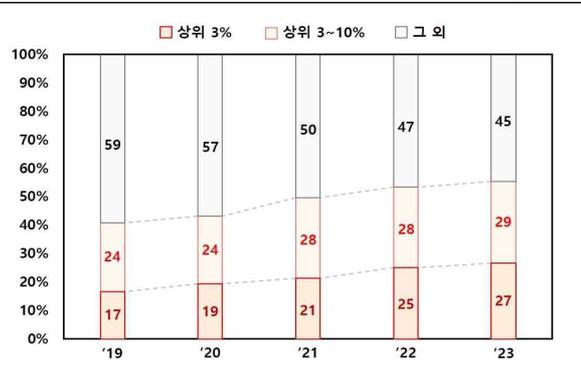
현장의 목소리

- "올해는 작년 대비 좋은 투자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함"
- "고금리 등으로 벤처펀드 출자규모가 줄어들면서, 운용자산 규모가 큰 대형 VC에만 출자금이 집중되어 중·소형 VC의 체감상 어려움이 큼"

<전년비 기업가치 감소 피투자기업(% 추정)>



<운용자산 규모별 VC 비중(%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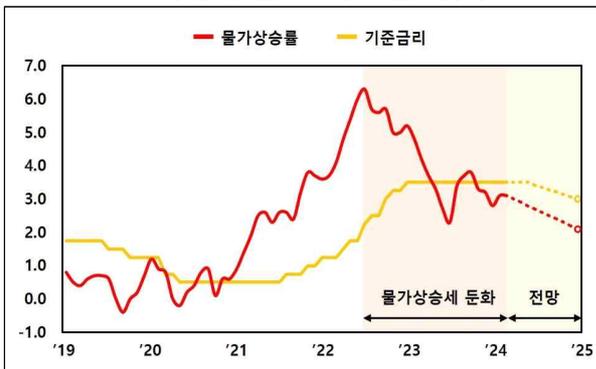


□ (외부 변수) 금리인하 · 주식시장 회복 시 긍정적*일 전망이나, 5월 현재 고금리 지속 우려 · 주가지수 부진 등 불확실성** 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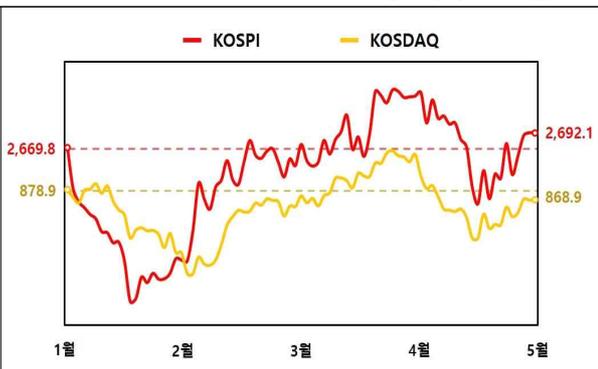
* 최근 15년간('09~'23) 금리 · 주가지수는 벤처투자와 상관관계 높음

** (금리) '23년 1월 이후 10차례 연속 기준금리(3.5%) 동결(한국은행, ~'24년 4월)
(주가지수) 연초 대비 상승률 : (KOSPI) +1% / (KOSDAQ) △1%

<물가상승률 · 기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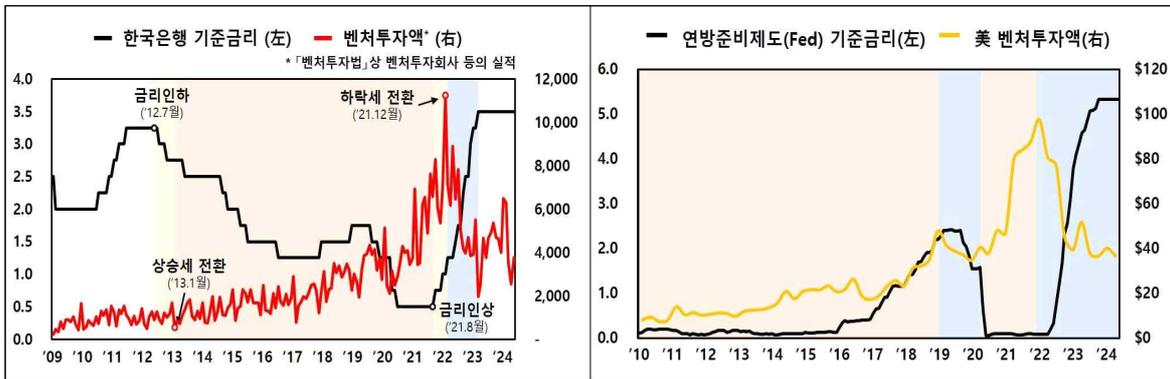
<'24년 KOSPI · KOSDAQ 지수 흐름>



< 금리 · 주가지수 등과 벤처투자 간 관계 >

- 금리 인상(인하) 시 벤처투자는 감소(증가)하는 경향(역방향)
 - 금리 인상(인하) 시 채권, 예·적금 등 안전자산 수익률 상승(하락)에 따라 벤처투자 수요도 감소(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 이외에도 금리 인상(인하)에 따라 ▲시중 유동성 및 투자재원 규모 · ▲스타트업 재무건전성 우려 수준 등이 달라지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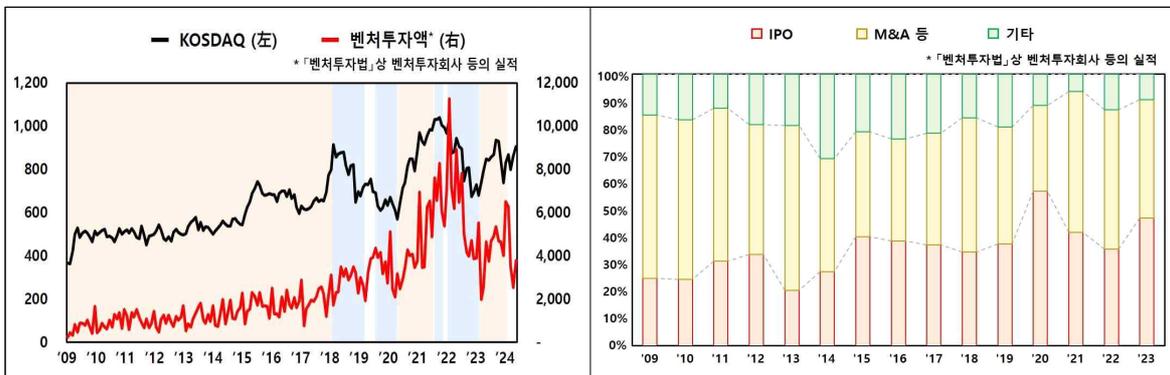
<韓 기준금리 · 벤처투자 추이(% , 억원)> <美 기준금리 · 벤처투자* 추이(% , 십억\$)>



* (출처)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조사기관 Pitchbook

- 주가지수 상승(하락) 시 벤처투자도 비슷하게 증가(감소)하는 경향(정방향)이 있으며, 특히 KOSDAQ과 상관관계 높음
 - 주가지수 상승(하락) 시 주식투자 선호가 강화(약화)되면서 피투자기업 상장(IPO)*을 통한 투자금 회수 기대 자극(위축)
 - * IPO를 활용한 투자회수 비중 : 최근 5년간('19~'23) 전체의 44%

<韓 주가지수 · 벤처투자 추이(억원)> <'09~'23년 투자회수 유형별 비중>



II. 정책방향

1 추진현황

◇ (개요) 주요 분야별 정책금융 마중물 확충 · 민간자금 유입기반 확대

□ (핵심분야 투자) ①스타트업코리아, ②지역, ③글로벌 분야 중점 투자

○ AI·반도체·로봇 등 딥테크 기업, 세컨더리 분야 등에 중점 투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출범('24.4월)

- '24년에는 대기업, 금융권, 중소·중견기업 등 21개 출자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민간자금 3,000억원 이상 출자 예정

<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출자기관 (21개) >

- ▲ (대기업) 효성(지주사·티앤씨·중공업), LG U+, 한화토탈에너지스, 삼천리, 카카오모빌리티
- ▲ (금융권) 삼성화재·생명, 국민은행, 기업은행, 노란우산공제
- ▲ (중소·중견기업) 비바리퍼블리카, 두원중공업, NPC, LF, KC, 종근당홀딩스, 신성델타테크, 마팔하이테크, 신한다이아몬드 공업

- 5월중 출자사업을 공고하고 연내 8,000억원 이상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딥테크 기업 등에 투자 개시

○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3개 권역 · 2,100억원 규모 '지역혁신벤처펀드' 조성 추진(~'24.下)

* (2분기) 부산(1,000억원) → (3분기) 경남(800억원) → (4분기) 경북 · 전남(총 300억원)

○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글로벌펀드*'를 1조원 이상 상반기 내 선정

* 해외 VC가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조건으로 운용하는 펀드로, '24년 8: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해외 투자자의 한국기업에 대한 관심도 높음

□ **(모태펀드 조기집행)** '24년 1.4조원을 1분기 내 공고하여 2.2조원 벤처펀드 조성 착수 ☞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 확충 추진

- 중기부는 0.9조원 규모 벤처펀드 운용사를 1분기 내 선정 완료
- 상반기 내 펀드 결성을 촉진*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 유도

* 펀드 결성시한(3개월) 내 결성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결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출자예산을 회수하여 2차 출자사업을 통해 새로운 운용사 선정

- 문체부·과기부 등 8개 부처 또한 대부분의 출자사업(0.7조원)을 1분기 내 공고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내 선정 예정

□ **(민간 벤처모펀드)** 순수 민간자금으로 조성하여, 스타트업 투자 목적의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 벤처모펀드' 도입 발표('22.11월)

- 1년 만에 법제화('23.10월), 1호 펀드 출범(11월) · 세제지원*(12월)

* 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간접투자 시 최대 8% 세액공제 등

- 1호 펀드 조성('24.2월, 1,000억원) 이후 공고된 1차 출자사업(4월)에서 경쟁률 4 : 1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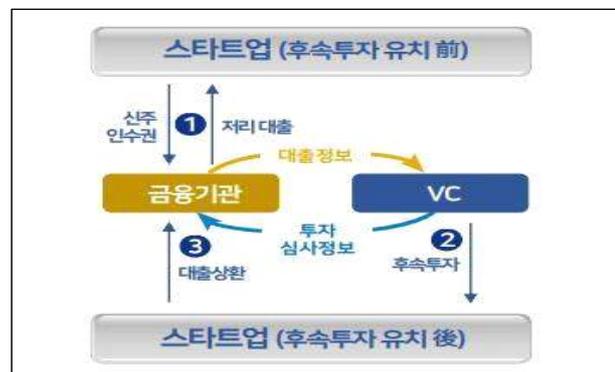
☞ 민간 벤처모펀드의 운용 가능성 입증



□ **(제도개선)**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선진금융기법 도입

- 금융권에서 융자·투자를 복합 지원하는 실리콘밸리식 융자 (Venture Debt) 법제화* 및 시범운영('24년 500억원, 중진공)

* 금융기관(은행 등)은 스타트업의 신주인수권을 부여받는 대신 낮은 금리로 대출 제공



- 벤처펀드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목적회사(SPC) 설립 허용 및 관련 보증 마련('24년 100억원, 기보)

2 향후계획

◇ (개요) 국내 벤처투자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동향 분석체계 고도화 · ▲국내외 투자수요 뒷받침 · ▲종합대책 수립

□ (시장동향 분석) ▲적시성 · 실효성 높은 벤처투자 통계 기반 구축 및 ▲벤처펀드 운용현황 관련 정보공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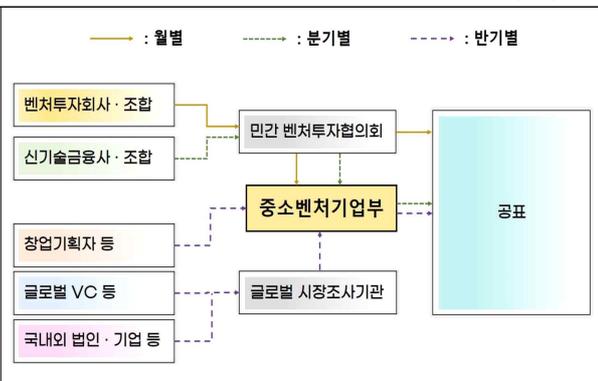
○ 유관 협·단체 및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등*과 협업하여 벤처 투자 주체별 기초자료 확보 · 분석 ⇨ 일정 주기마다 공개

* (협 · 단체) 민간 벤처투자협의회 (벤처캐피탈협회 · 여신금융협회 등으로 구성)
(글로벌 기관) Preqin(英), Pitchbook(美) 등 (국가별 벤처투자 현황 집계 ·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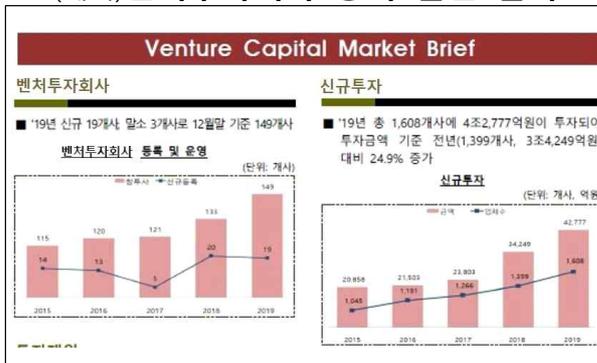
<투자주체별 현황 공표주기(안)>



<투자주체별 기초자료 수집 경로(안)>



<(예시) 벤처투자회사 등의 월별 실적>



<(예시) 외국법인 등의 투자내역>



○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펀드 운용 수익률* 등도 분석하여 민간에 공개하는 등 벤처투자 접근성 제고(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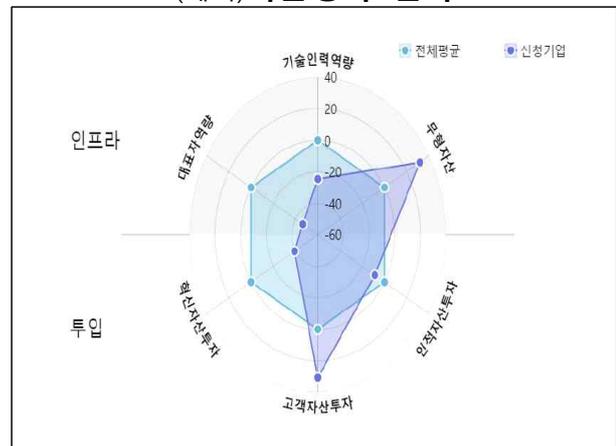
* 청산 완료된 276개 모태자펀드('23년말 기준)의 연평균 수익률(IRR)은 7.5%로, 벤처펀드는 위험성이 높은 투자라는 통상적 인식과 달리 견조한 수익률 시현

- **(지역 투자 활성화)** 비수도권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용 펀드 확대 · 지역 순회 투자설명회(IR) 개최
 - '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원 이상 신규 공급
 - * '23년말 기준 누적 5,800억원 규모 조성
 - 지역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지역 순회 IR을 정례 개최(연간 6개 광역권별 1회, 총 6회 개최)
- **(우수 기술기업 투자 촉진)** VC들이 신규 투자처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기술평가 정보(기술보증기금) 공유 추진

- 기술평가 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인 우수기업의 평가 결과를 VC업계와 공유하여, 해당 기업 투자유치 지원

- 기술보증기금 협력사인 VC 대상 시범운영('24.下)을 거쳐 '25년부터 전체 VC에 확대* 실시

<(예시)기술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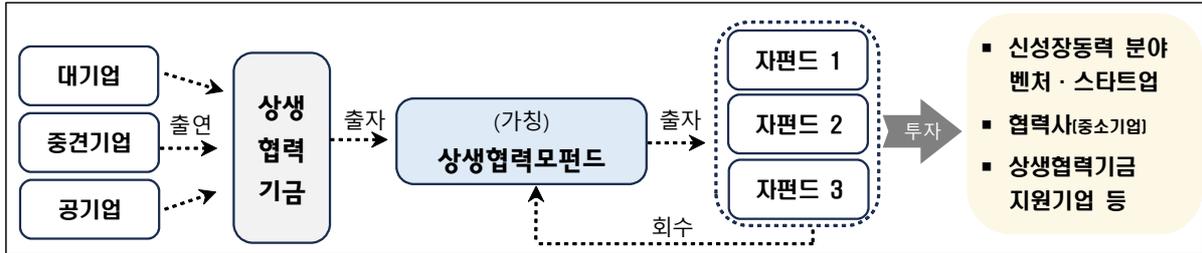


- * ▲기술평가 정보제공을 위한 법적 요건(「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 허가 취득) 완비 및 ▲개별기업의 신용정보 제공 · 활용 등의 절차 마련 추진

- **(글로벌 자본 유치)**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 지원
 - 글로벌펀드를 '27년까지 4조원 규모 추가* 조성
 - * 해외 VC 글로벌펀드(누적, 조원) : ('13~'23) 10.3 → ('24~'27) 14.3 (목표)
 - 국내·외 유수 VC가 엄선한 국내 스타트업(연 30개사 내외)을 해외 투자자에게 소개하는 투자유치 프로그램 'K-글로벌스타' 신설
 - * 일본(5.10.)을 시작으로 미국, 아시아, 유럽 등 글로벌 현지에서 연이어 개최 예정
 - 사전교육, 현지 IR, 법률자문 등 투자유치 단계별로 지원
 - 투자유치 성공 시 글로벌TIPS · 기술보증 · 모태펀드 매칭 투자 등 파격적인 정책지원 패키지 제공

- **(신규 출자재원 발굴)** 대기업 등이 조성한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하고, 동반성장평가와 연계한 유인책 추진

* '23년 출연금액 : 3,870억원 (누적시 2.6조원)



-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대·중견기업의 전략적 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 현행 외부자금 모집 규제(펀드별 40% 이내) 완화 추진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 **(종합대책 수립)** 국내 벤처투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펀드결성 · 투자 · 회수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 마련('24.下)

3 추진일정

정책과제	시기
1. 벤처투자 시장동향 분석체계 고도화	
▶ 적시성 · 실효성 높은 벤처투자 통계 기반 구축	
▪ 벤처투자회사 · 조합 현황 월별 공개	'24.下
▪ 글로벌 벤처캐피탈 등 현황 반기별 공개	'25.上
▶ 벤처펀드 운용현황 관련 정보공개 확대	'24.下
2. 국내외 투자수요 뒷받침	
▶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 지역 전용 벤처펀드 누적 1조원 조성	~'26
▪ 지역 순회 IR 정기 개최	'24.下
▶ 우수 기술기업 투자 촉진	'24.下
▶ 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	
▪ 글로벌펀드 4조원 추가 조성	~'27
▪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 신설 및 벤처투자 로드쇼 진행	'24.上~
▶ 신규 출자재원 발굴	
▪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24.下
▪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추진	'24.下
3. 벤처투자 종합대책 수립	
▶ 펀드결성 · 투자 · 회수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 마련	'24.下

붙임

'24년 1분기 벤처투자 상세 동향

□ **벤처투자** : 총 1조 8,787억원 (전년동기비 +6%)

(단위: 억원, %, 건, 개사)

구분	'20년(1분기)	'21년(1분기)	'22년(1분기)	'23년(1분기)	'24년(1분기)
투자금액	14,670	24,710	39,189	17,800	18,787
전년동기 대비		+68	+59	△55	+6
투자건수	1,022	1,480	2,143	1,327	1,544
피투자기업 수	719	1,010	1,193	862	1,047
구분	'20년(전체)	'21년(전체)	'22년(전체)	'23년(전체)	'24년(전체)
투자금액	80,962	159,371	124,706	109,133	해당없음

□ **벤처펀드 결성** : 총 2조 3,628억원 (전년동기비 +42%)

(단위: 억원, %, 개)

구분	'20년(1분기)	'21년(1분기)	'22년(1분기)	'23년(1분기)	'24년(1분기)
결성금액	10,423	27,765	42,998	16,687	23,628
전년동기 대비		+166	+55	△61	+42
결성펀드 수	91	201	247	140	165
구분	'20년(전체)	'21년(전체)	'22년(전체)	'23년(전체)	'24년(전체)
결성금액	99,853	178,640	176,495	128,751	해당없음

(단위: 억원, %, %p)

구분		'20년(1분기)	'21년(1분기)	'22년(1분기)	'23년(1분기)	'24년(1분기)	전년동기비
정책금융	금액	1,861	6,144	6,209	2,739	5,799	+112
	비중	18	22	14	16	25	+9
모태펀드	금액	1,020	2,888	1,548	935	1,205	+29
	비중	10	10	4	6	5	△1
성장금융	금액	426	1,793	2,919	875	2,046	+134
	비중	4	6	7	5	9	+4
산업은행 및 기타	금액	414	1,463	1,742	929	2,548	+174
	비중	4	5	4	6	11	+5
민간부문	금액	8,562	21,620	36,789	13,948	17,829	+28
	비중	82	78	86	84	75	△9
개인	금액	1,018	3,074	8,403	2,146	2,169	+1
	비중	10	11	20	13	9	△4
일반법인	금액	2,639	5,803	8,049	4,259	4,423	+4
	비중	25	21	19	26	19	△7
금융기관 (산은 제외)	금액	2,069	6,108	13,588	5,135	5,832	+14
	비중	20	22	32	31	25	△6
연기금 및 공제회	금액	1,237	2,894	1,417	140	1,163	+730
	비중	12	10	3	1	5	+4
VC·AC	금액	1,305	3,187	4,525	1,711	2,847	+66
	비중	13	11	11	10	12	+2
기타단체 및 외국인	금액	295	555	806	557	1,396	+150
	비중	3	2	2	3	6	+3
합계		10,423	27,765	42,998	16,687	23,628	+42